

‘전주 驛舍 사진’ 최우수 기록물 선정

‘제8회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 결과 박준상 씨 기증 사진 가장 높은 평가 받아

전주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중에서 덕진역부터 현재의 전주역에 이르기까지의 자료 사진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지난 3월 16일부터 지난 달 15일까지 ‘당신의 앨범 속 전주를 찾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제8회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에서 박준상 씨(93세)가 기증한 전주의 역사(驛舍) 사진을 최우수 가치가 있는 기록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40여 년간 철도청에 근무했던 박준상 씨는 그간 간직해왔던 1961년 전주역과 1965년 동산역, 1977년 덕진역, 1981년 전주역 등 전주의 역사(驛舍) 사진 70여 점을 출품해 심사위원들의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1980년대 금암분수대, 1968 미원탑, 1980년 전주이씨 추계대회 조경단 사진 △1980년대 제1회 한시 백일장 심사 사진(전주객사) △1966~87년 근영여고 졸업앨범 13권 △고 천이두 평화가 직접 작성한 근현대 문인 사진집 등이 최우수 가치가 있는 기록물로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공모전을 통해 과거의 전주를 엿볼 수 있는 △1980년대 전주천(다가동) 빨래터 길라 사진 △일제강점기 북중전교 학생들의 학교 밖 활동 사진 △선대에서 현재에 이르는 가족 앨범 및 그 안의 사진 자료 △1942년 전주사범학교 앨범 등 오랫동안 소장해왔던 시민들의 사진들이 시에 기증됐다.

시는 소장자료를 시에 기증하고 활용에 동의해준 기증자 전원에게 최



전주역 신축 공사 완료 직전 사진(1981년 1월)

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기증보상금(은누리상품권)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소중하게 간직해 온 개인의 유산을 전주시 기록으로 남도록 기증해 준 시민들을 예우하고 기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나아가 시는 수집된 기록물에 대한 구술 기록을 덧붙여 기증자의 삶과 추억을 반영시킬 예정이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향교, 서원을 비롯한 전주의 유교 문화’를 주제로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전 심사에 참여한 정지영 원로 사진가는 “시민 한 명 한 명의 앨범 속 전주를 보니 전주를 사인으로 담는 일을 평생 업으로 해온 사람으로서 감회가 남달랐다”며 “개 개인의 삶의 기록이 한데 모여 전주의 역사가 되는 이번 사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공모전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인후동에 위치한 전주시민기록관에서 안전하게 보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을의 소중한 사진, 지도, 기념품 등 시민의 삶이 담긴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문화 조성 나서

12일까지 ‘로컬푸드 소비 촉진 식생활교육’ 참여 기관·단체 모집

전주시가 지역 먹거리의 소비를 촉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민교육에 나선다.

시는 우리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일상에서 바른 식생활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로컬푸드 소비 촉진 식생활교육’에 참여할 기관·단체를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시민들에게 제철음식의 중요성과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무료로 실시된다. 참여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나 20인 이상의 지역의 기관·단체·모임 등이다.

시는 별도의 체험실습 공간을 갖춘 전문 교육단체를 통해 건강한 장보기 방법 등 친환경 로컬푸드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교육과 아재 샌드위치 만들기, 우리쌀 아재피자 등 요리실습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체 실습장이 있는 신청기관·단체의 경우 방문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전주시청 먹거리정책과(대우빌딩 6층)로 방문하거나 이메일(zzine77@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박용자 전주시 먹거리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주시민들이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에 대한 이해와 로컬푸드 소비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지원해 친환경 농가의 생산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마당창극 전용 야외공연장 조성

전주시, 한벽문화관 야외마당에 이달 중 착공해 연말까지 완료키로

관광거점도시 전주시가 한옥마을 여행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마당창극을 대표적 공연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야외공연장을 조성한다.

시는 국비 12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한벽문화관 야외마당에 전주마당창극 전용 야외공연장을 이달 중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그간 마당창극 공연진들은 전용 공연장이 없어 한벽문화관 야외마당을 사용해왔으나 전통혼례 등 기타 행사와 겹치는 경우 연습과 공연에 어려움이 겪어왔다. 또 관람석의 높이 단차가 없어 관객들의 시야 확보에도 불편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64석의 관람석을 갖춘 680㎡(205평) 규모의 야외공연장을 조성키로 했다. 이곳에는 무대, 조명·음향 등 공연장치는 물론 공연진을 위한 대기실과 분장실, 연습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담긴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부대 시설도 들어선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부터 마당창극 운영진 등과의 한옥보전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행정절차도 마무리한 상태로, 올 연말까지 야외공연장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전주마당창극 전용 야외공연장이 건립되면 시는 마당창극을 전주시를 대표하는 공연브랜드로 육성하고, 관객들도 시야확보가 용이해지는 등 쾌적한 환경 속에서 품격 높은 공연을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마당창극 전용극장 조감도.

고 있다. 나아가 한옥마을의 전통문화 콘텐츠를 강화해 한옥마을 여행객의 외연을 확장하고 관광거점도시로서의 성숙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번 야외공연장 조성을 통해 여행객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마당창극이 전주를 대표하는 공연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여행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2년부터 ‘해 같은 마패를 달 같이 들어매고, 천하맹인이 눈을 뜬다, ‘아나오타 배 갈라라!’, ‘변사또 생일잔치’, ‘진짜 진짜 옹고집’ 등 마당창극을 공연했다. 대표적으로 ‘변사또 생일잔치’는 지난 2018년 오페라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의 5개 도시에서 순회공연을 펼쳐 주목을 끄는 등 대중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았다.

/김윤상기자

‘시장 상인 430억원 먹튀’ 대부업체 대표 구속

전주시내 전통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투자금을 받고 잠적했다가 붙잡힌 대부업체 대표가 8일 구속됐다.

전주지법 이의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대부업체 대표 A(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주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전통시장 상인 등 71명으로부터 43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전주시보건소, 야외활동 시 진드기 예방수칙 준수 당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 주의 위해 긴 옷 착용·외출 후 목욕하기 등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전국적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야외활동 시 긴 옷을 착용하는 등 진드기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주로 4월부터 11월까지 참진드기(작은 소피참드기)에 물린 후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바이러스 감염병이다. 특히 전북 지역은 참진드기 밀도가 높은 지역인 데다가 이 바

리러스에 걸린 경우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시민들은 이 같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 시 긴 옷 입기, 외출 후 목욕하기와 옷 갈아입기 등 진드기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등산로와 유아숲, 아이숲, 천변로 등 숲속 야외활동 시에는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얼굴과 목을 제외한 겉옷에 10초간 뿌려 해충의 접근을 감소시켜

야 한다.

진드기에 물렸거나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소화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신속히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발생한 총 1097명의 환자 가운데 50대 이상의 농업 및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 고연령층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윤상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